



김민석 국무총리 광주에서 두번째 『K-국정설명회』 개최

- 빛의 혁명 1년, 민주화운동의 거점 광주에서 본격 전국 순회 시작 -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4일(목) 16:00 광주 서구 서빛마루예술회관에서 지역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『K-국정설명회』를 개최한다.
- 『K-국정설명회』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1년, 국민주권정부 출범 6개월에 즈음하여, 그간의 국정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, 전국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며,
 - 12.2(화) 서울청사 청년인턴과 신입공직자를 대상으로 첫 강연을 연 데 이어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본격적 전국 순회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.
- 이번 설명회는 광주 서구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, 그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내란을 뿌리뽑고, 국민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핵심 가치·비전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, 진솔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.
 - 특히, 이번 『K-국정설명회』가 민주주의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개최된 만큼, 김 총리는 “광주 진상규명을 외치다 투옥된 이래, 광주는 저의 정신적 고향”이라며, “5.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막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‘빛’이라고 강조”할 것으로 전해진다.
- 국무총리실은 오늘 본격적인 전국 순회에 돌입한 『K-국정설명회』를 현재 예정된 일정 뿐만 아니라 추가로 국정설명회를 요청하는 전국 각지의 지자체, 단체, 대학, 정당 등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국무총리의 고유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.
 - ※ 현재 예정된 「K-국정설명회」 일정 : ▲124일 광주 서구청 초청 → ▲12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 공장(청년 대상, 인천) → ▲1215일 민주평통(서울) → ▲1219 전북 JC 초청주민 대상 전주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박영두 (044-200-2048)
		담당자	사무관	이경민 (044-200-2054)